"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가 성전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 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LdzgbadWj0weCYHq9_WHyx-8KPqbEiu?usp=sharing

2. 애찬관 재개: 각종 기념일에 애찬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후원사역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애찬 섬김>은 생일, 결혼, 출산, 진급, 사업 등을 기념하면서 전 교인을 애찬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애찬실에 게시된 주별 신청란에 기념내용과 함께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harisma Revival 집회

연합감리교단 내의 한인 목회자들 100명이 교단의 난제를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 모임은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잇 체험을 통해 감리교를 일으켰듯이, 성령의 역사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영적 시도입니다.

* 강사 / 앤드류 박 교수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교),
이성철 목사 (달라스중앙 KUMC),
김성찬 목사 (뉴욕지역 UMC 감리사)
* 일시 / 2월21일(월)-24일(목), * 장소 / 뉴욕 후러싱 KUMC

• <모•이•새, 사순절 새벽예배 참여신청>

제2차 모•이•새 '사순절 새벽 연합 성회'는 사순절 (3/2-4/16)기간, 개체교회의 담임 목사님(매주 토)과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월-금)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연합성회>입니다. 이번 성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신청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에 한 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목회자동정

[담임목사님] 2/21(월)-24(목), 카리스마 리바이벌 집회에 참여하십니다.
*장소-뉴욕 후러싱제일 교회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예배

1. 유아유치부/미디어담당 사역자: 윤성민 전도사님께서 3월1일부로 유아유치부/미디어 담당 사역자로 부임하십니다.
2. 성전예배에 참여하는 가정에서는 안전을 위해 2부 예배 후 아이들을 바로 픽업해주시기 바랍니다.

•Youth/EM 광고

1. Small Group (Thursday) 7:30 pm at Pastor Julius's Home.
2. Youth Group FNL (Friday) meeting at 7:00pm at church
3. Feed South Florida: Every Saturday at 8:00 am to 10:30 am
Volunteer hours will be offered to youth students. 문의: Pastor Julius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19:26)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성서강해(Wednesday Bible Stud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9:00 a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수요제자학교 / 수요일 4:00 pm

섬기는 사람들

- EM, Youth/ 안준영 전도사
- 유초등부/ Ms. Carmen Chang, 유아유치부/ 김경애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심성애, 반주-윤미아, 2부 플룻-노지현
- 경배와 찬양/ 리더-유철우, 키보드-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김동규
- 방송.미디어/ 김동규, 양재일
- 교회관리/ 전정환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16,480.00

일반헌금 $15,125.00	십일조: $9,969.00 주일: $1,895.00 감 사: $1,985.00 기타: $1,276.00
건축헌금 $1,040.00	약 정: $1,040.00
선교헌금 $315.00	속 회: $90.00 중남미: $225.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1권 08호
2022년 2월 20일

연합감리교회

2022년도 표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19:26)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행11:23)

남 부 플 로 리 다

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MC of South Florida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www.kumcsfla.com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예배

<주현절 일곱번째주일>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예배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경배찬송 Opening Hymn / 32장	▲ 경배와 찬양 / 다같이 Worship & Praise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79번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 영광송 Gloria / 2장	찬송 Hymn / 356장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Hymn / 356장	기도 Prayer / 이정석 권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성경봉독 Scripture / 이사야(Isa) 41:14-16
기도 Prayer / 김수경 권사	찬양 Choir/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Scripture/ 이사야 41:14-16	- 날마다 -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교회소식 Announcement
- 주의 영광을 노래하자 -	▲ 봉헌 Offering / 다같이
교회소식 Announcement	설교Sermon / 이철구 목사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 내 가 너 를 도 울 것 이 라 ! >

위십댄스: 요게벳의 기도	*위십댄스: 요게벳의 기도*
▲ 파송찬송 Closing Hymn / 406장	▲ 파송찬송 Closing Hymn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2년 2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2월 20일	1부	믿음교구	담당자	김수경권사	
	2부			이정석권사	
다음주 2월 27일	1부	믿음교구	담당자	박영희권사	
	2부			황영순권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19:26)

금주의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사 41:14)

금주 애찬 섬김

	금주(2월 20일)		다음주(2월 27일)
	주상숙.윤기향장로		김순예.김천삼장로
	범사감사		결혼기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목회 칼럼

세상에 열등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간의 열등의식은 출생할 때부터 그 내면에 뿌리내린 어두운 감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어둔 그림자가 드리워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끝이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롬6:6)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하에서 주신 은사로 감당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25:15). 여기서 주인이 종들의 '재능대로' 차등을 두고 달란트를 맡긴 것은 철저히 그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파악하고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긴 것으로 종은 주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된 일화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행11:22-24). 이렇듯 바나바는 사도들이 파견한 사람으로 권위가 있었고, 그의 합류로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그 때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은사가 자기에게 부족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결단하고 한 일이 이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25,26).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은 바나바가 자기를 비우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제자들을 가르치도록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함철훈이 "몸을 낮추니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기에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그로인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9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의 황대헌 선수가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선 1000m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실격을 당해 금메달을 놓친 후의 경기여서 관심이 많았는데, 황 선수는 "경기의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이라며 자신의 위치를 지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남기며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기에, 어떤 경우든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9:19).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거듭난 이후 자기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남기는 삶에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1속 (평양과기대-고동훈)	충성2속 (도미니카- 피터정)	충성3속 (아틀란타- 다니엘양)
믿음1속 (중국- 장은광)	믿음2속 (쿠바- 김기헌)	믿음3속 (카자스탄- 양재성)
믿음4속 (이라크- 손기주)	온유1속 (니카라과- 김향자)	온유2속 (말레이시아-김시온)
온유3속 (아리조나- 이영호)	소망1속 (니카라과- 김규현)	소망2속 (볼리비아- 김영모)
소망3속 (키르키즈스탄-임다윗)	사랑1속 (태국- 이우현)	사랑2속 (터키- 송정렬)
은혜1속 (하이티2- 정 광)	은혜2속 (하이티- 김승돈)	